

[월간미술 10월호]

신미경展

9.6-29 성곡미술관

### 박영택 \* 경기대 교수

신미경의 주제는 '번역' 혹은 '평행이동' 이란 의미를 지닌 'Translation'이다. 작가는 영국의 박물관에서 직접 접한 아테네 파르테논에서 떼어온 유물들을 보면서 본래의 장소가 지닌 역사성과 분리되어(탈장소화) 보이는 방식을 접했다. 이것이 서양미술의 원류와 시공간의 차이를 갖고 한국 땅에 들어와 제도화되고 교육된 그간의 서양미술을 새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레 작업의 주제로 형성된 듯하다. 신미경은 이번 전시에서 이동된 장소성과 그 이동에 따른 문화적 물이해, 왜곡 등을 말하고자 한다. 원래의 장소에서 자생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 역사와 배경을 달리하는 다른 장소에서 보이는 것, 그로 인한 불가피한 번역과 왜곡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 작가의 전략이 되었다. 서구 고전 조각의 포즈를 비누로 모각하는 과정에서 원작과는 다른 균열과 차이가 발생한다. 향기 나는 비누로 조각함으로써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케 하려는 것인데 이는 원래의 대리석 조각 역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마모되는 것에 대한 은유다. 결국 작가는 '번역'이라는 주제를 통해 문화의 단순한 수평이동이 아닌 해석자가 지닌 시각과 관점에 의해 새롭게 환생하는 또 다른 탄생을 말한다. 나로서는 신미경의 작업을 보면서 배준성, 정주영 같은 작가들의 작업을 떠올려 보았다. 공통된 점은 일종의 '문화전이'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또한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지탱시킨 그간의 전거들을 반성하고 드러내며 그 기반 자체를 문제시하는 지점에 걸려있다. 물론 이는 미술사가 하나의 원천과 근원으로서 창작의 기반이 되는 흐름과 맞물려있다. 또한 경계를 문제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탈식민정체성과도 연관된다는 생각이다. 경계란 순탄한 전환이나 초월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내적 전위와 분절의 과정이 발생하는 지점이며 과거와 현재의 시간, 그곳과 이곳의 공간, 지역과 간국가적 리얼리티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 경계에서 지속적으로 절충을 위한 문화적 번안의 변증법이 작용하면서 문화적 혼성과 예술적 새로움이 만들어진다. 문화의 번안과정이 필연적으로 문화적 혼성을 거치며 그 결과 원형의 참조구조가 파괴된다는 지적은 모방이론, 즉 모방이 제국의 문화에 저항하기 위한 식민지인의 미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 신미경의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 자신의 작업을 그와 같은 텍스트아래 위치시키고 이해시키려 한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작업의 알리바이로 포장된다는 느낌을 준다. 여전히 중심과 주변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작업을 전개시키면서 최근 주요한 담론인 탈(후기)식민주의 혹은 문화전이, 문화적 정체성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든다. 시의적이고 흥미있고 진지해보이지만 자신이 차용하고 끌어들인 텍스트의 진위성 및 작업의 진정성 같은 것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 대다수 작가들의 작업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